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IT금융경영학과	이름	강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9.8~2020.4
귀국여부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
파견대학	<p>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쉬펜스버그에 있는 Shippensburg University입니다. 총 학생 수는 약 7000명 정도 되고 학교 크기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Downtown은 학교 정문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근교(마트 장보기, Downtown)로는 어려움이 없으나 우버, 택시가 존재하지 않아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해 있어서 가까운 도시로는 워싱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그리고 피츠버그, 뉴욕 더 나아가 캐나다 토론토까지 보다 쉽게 여행 할 수 있습니다.</p>
2019-2학기 수업	<p>Managerial Economics - David E. Kalist Prof</p> <p>이 수업은 2019-2학기 수업 중에 가장 좋았으며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주고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들었던 1,2학년 때 들은 전공수업과 많이 겹쳐서 내용이 잘 이해되고 설명도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발음이 가장 듣기 편했습니다. 과제는 D2L(학교 연계 사이트, 순천향대학교의 LMS와 비슷한 사이트)에 2주에 한번이나 1주에 한번 퀴즈를 풀고 중간고사,</p>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에 무리가 없게 시험 전주에 예상문제를 D2L에 올려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중간, 기말 모두 객관식)

Intro to Academic Writing

토플로 에세이를 써봤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제대로 영어로 에세이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에세이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Quotation, Summarize, Argumentative Essay, Opinion 등등 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교수님께 도움을 청해도 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잘 되어있는 방법은 Writing Center가 있어 시간을 정해서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대부분 과제가 에세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고 교과서에 있는 매 수업 전에 해당 Chapter를 미리 읽어가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Financial Institution - Pham Prof

이 수업은 2019-2학기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개인적으로 베트남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학기 중에 총 4번 퀴즈와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퀴즈는 미니 테스트로 시험보다는 간략하게 나오지만 공부를 꾸준히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3번 중에 1번의 시험만 쉬웠고 2번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발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경제적인 이슈를 개인이 선택해서 자신이 선택한 날짜에 5분 동안 그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수업은 복습, 연습이 필수인 수업입니다. 수업 전에 PPT자료를 다운받아 미리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상기시켜야 합니다. (객관식 60% 단답형 20% 서술형 20%)

Applied Calculus

이 수업은 전공과 관련 있는 수학이라 신청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학기 내내 기초적인 미분, 적분을 사용하고 경제와 관련된 응용문제를 토대로 시험을 봅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매 수업시간마다 간단한 퀴즈를 보았고, mymathlab 사이트에서 매 Chapter가 끝날 때 마다 과제가

	<p>있었습니다. 시험은 총 3번이 있고 풀이과정과 답을 모두 써야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미국인 친구들이 쉬운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p>
<p>2020-1학기 수업</p>	<p>Sports Economics - David E. Kalist Prof 이 과목은 1학기 때 Managerial Economics 과목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같은 교수님 수업 중 1개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수업방식은 1학기 수업과 비슷하게 칠판에 적어주시는 내용을 적고 한 가지 다른점은 PPT 자료를 수업시간에 사용했습니다. 과제는 역시 D2L에서 매주 퀴즈가 있고 단순한 Excel을 이용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COVID-19 때문에 Spring Break 가 끝난 후 수업이 모두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p> <p>Risk Management & insurance - Fan Liu Prof 이 수업은 제가 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전공 그리고 미국에서의 보험체계가 궁금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분이셨고 발음이 살짝 이상했지만 베트남 교수님보다 훨씬 잘 들렸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과제나 발표는 없었고 퀴즈 5번 시험 3번이 있었습니다. 퀴즈는 2문제씩으로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총 25문제로 오픈 북이고 PPT자료, 개인 노트를 찾아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월했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Spring Break 가 끝난 후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녹화방송을 듣고 질문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오픈 북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p> <p>Bank Management- Pham Prof 두 번째 학기는 첫 번째 학기보다 수업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1학기 때 들었던 교수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4학년과목이고 주변 친구들에게 어렵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배우는 것도 많았고 보다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 오면 배워보고 싶은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미국 은행의 체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p>

	<p>배우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발표수업은 없었고 짧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바로 퀴즈를 푸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간단한 퀴즈와 중간, 기말이 있습니다. 이 수업도 만만치 않았지만 1학기 수업보단 배우는 것이 많아서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p> <p>Introduction to Human Communication</p> <p>이 수업은 교환학생 하는 동안 미국인 앞에서 영어로 Speech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수업은 간단한 Narrative Speech, Informative Speech, Argument Speech를 종류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말할 수 있는 팁을 교수님이 PPT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섹션별로 수업이 끝나면 날짜를 정해서 본인이 정한 주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과제는 에세이 하나 시험은 총 세 번 있었습니다. 에세이는 자신의 미래 직업에 현직자와 그 직업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쓰는 것이고 시험은 모두 객관식이었습니다. Spring Break가 끝난 후 온라인 클래스로 바뀌고 두 번의 Speech가 남아있어서 셀프 동영상을 찍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p> <p>Historical Foundation Global Cultures</p> <p>이 과목은 미국 학교에 가서 미국은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 호기심이 생겨서 신청했습니다. 배우는 부분은 세계사와 세계지리의 기초부분을 배워서 4대문명, 중세시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역사와 위치에 대해서 배우고 일주일에 수업이 두 번 있는데 한번은 선생님이 PPT로 수업하시고 다른 날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룹을 만들어 토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참여 점수가 중요해 매 수업시간마다 질문을 한 가지 이상 꼭해야하고 매주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퀴즈를 봤습니다. 시험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있고 퀴즈와 시험 질문이 유사합니다. 역사 용어와 내용이 다 처음 보는 것이므로 미리 복습해가야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 담당자는 총괄 담당자 Mary와 그녀의 조교 April이 있습니다.

	<p>그리고 International 대학원 친구들도 있어서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도움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냥하고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OT기간에 교환학생들끼리 학교투어도 하고 여러 담당자가 미국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생활하면 좋은지 팁을 줍니다. 각종 여러 행사가 있고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해 한 강의실이 있어 그 곳에 가면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교환 학생 들과 미국인 친구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한 학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친구들끼리 한, 두 번 여행과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
날씨	<p>날씨는 대체적으로 맑고 간간히 비가 옵니다. 정말 구름이 멋지고 하늘이 아름다워서 종종 풍경 사진을 찍습니다. 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살짝 덜 덥고 습도가 없어서 불쾌지수가 낮습니다. 겨울에는 한국과 비슷하게 눈이 적당히 옵니다.</p>
안전	<p>보통 학교 근처라 안전합니다. 두 학기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왔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Stone Ridge Commons, 숙소는 Off-Campus 기숙사 형태이긴 하지만 학교와 가장 거리가 가까워 등, 하교하기에 정말 편했습니다. 강의실까지 보통 5분정도 걸리고 보통 교환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2인실, 4인실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2인실에 살았습니다. 현관문 안에 들어가면 개인 방 두 개가 있고 화장실, 거실, 부엌은 룸메이트와 공용시설입니다. 분위기는 몇몇 방들 빼고 조용합니다. 가끔 경보기가 울려 새벽에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편안히 지냈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기숙사 내부에 경보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연기가 많은 음식을 할 때 경보기가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샤워공간이 붙어있고 배수구가 샤워공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때 물이 많이 튀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학교 Meal Plan은 뷔페 형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격은 월~금 점심 저녁을 신청할 경우에 한 학기에 약 200만원입니다. 저는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직접 월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기숙사에서 해먹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장을 봤고 미국인 친구나 룸메이트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가끔 해 먹는 것이 질리고 귀찮을 때는 학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뷔페형식은 한 끼에 \$13이고 보통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파는 CUB 이나 Kriner Hall에서 평균 \$10정도면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owntown 주변에 몇몇 레스토랑이 있어서 피자와 파니니 등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는 한식당이 없어서 차 있는 친구와 함께 종종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p>
교통	<p>보통 장을 보거나 Downtown을 나갈 때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곳을 말하면 근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제일 가까운 공항이나 기차역은 살짝 거리가 있는데 택시나 우버가 없어서 살짝 불편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인 친구들이 대부분 차를</p>

	가지고 있어 라이드를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공항부터 학교까지 가야하는데 대부분 미리 날짜를 말하면 교환학생 동아리 학생회장이 데려다 줍니다. 가까운 워싱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뉴욕 등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차를 렌트해서 갈 수 있습니다.
--	--

4. 소요경비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
항공료	230만원	출국 120만원 / 입국 110만원
Fees	약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으로 프린트, 학교행사, 학교 내 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하는 것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국내보험 (NH 유학생 보험) 약 30만원	미리 요건들을 확인해서 그 요건들에 충족하는 국내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미국에서 보험을 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소	Stone Ridge Commons 10개월 약 650만원 보증금 60만원	3개월 마다 결제하며 3개월에 약 200만원 입니다.
식비	약 150만원	거의 만들어 먹어서 월마트 장보는 비용에 종종 사먹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교통비	*	평소에 교통비는 전혀 없었고 여행갈 때 이동하는 비용은 여행비에 포함했습니다.
책값	30만원	한 학기에 3권정도 교과서를 렌트하는 평균 한권 당 약 5만원씩

		들었습니다.
여행비	약 500만원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 기타 (피츠버그, 허쉬파크, 워싱턴, 마이애미, 뉴욕, 근교여행, 캐나다)
총 비용	약 2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짐 싸는 것을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1년 동안 사용할 **겨울옷**, 여름옷, 생활용품(**감기약**) 등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이나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은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할 서류(여권, 항공권, 보험증명 서류 등)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잘 챙겼는지 혹시 놓고 온 것은 없는지 확인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미리 OT 기간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고 OT날은 무조건 참석이라 그전에 도착 할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이 사는 기숙사 입사 날짜를 확인해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OT 기간 전에 미리 가서 미국인 친구와 여행하고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가서 본인이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갔다 올 수 있고 시차, 외국인과 대화, 문화, 음식을 먼저 경험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국에 귀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미국에서 교환학생의 첫 날이 생생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정말 아프지 않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오자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운이 좋게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Shippensburg 친구 한명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서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그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 픽업도 해주고 집도 초대해줘서 즐거운 식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지역의 전통행사, 사격, 술 문화 등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한식당에 가서 제가 한국음식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현지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가족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를 초대해서 가족행사에 데려갔습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여러 친척들을 포함해 대가족이 모이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20명, 3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었던 미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어서 한국 얘기나 순천향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친구들 중 한명의 집에 초대받아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기억 중에 가장 남는 것은 할로윈 파티입니다.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한 친구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 모두 당일 날 의상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겼습니다.

세 번째로, Shippensburg 대학교에서 Part-time job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 때문에 학교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었고 오자마자 20곳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딱 한곳에서만 연락이 와서 Moving Crew 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학교 내에 크고 작은 행사가 생기면 그 행사에 필요한 테이블이나 의자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평일 수업 시간 외에만 일을 할 수 있고 시급이 작았지만 보다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과 용어들 때문에 헤맸지만 점차 적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파악해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학교에 모든 건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얘기를 하고 보통 미국사람들끼리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아저씨들과 Shippensburg 학생들과 친해져서 농담도 하고 편안하게 대해줘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가끔 가기 귀찮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안했으면 특별한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친해졌던 교환학생친구들, 학교 친구들과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룸메이트인 독일친구를 포함해 가장 빨리 친해졌던 프랑스, 독일 교환학생 친구들과 파티에 가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미국의 홈 파티의 문화도 배우고 술집도 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간 중간에 짧은 방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피츠버그와 캐나다 토론토와 앵골콘 국립공원에 놀러갔습니다. 외국인과 여행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그냥 한국인 친구와 여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술 마시며 깊은 대화도 하고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는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축구를 했고 교내 축구대회가 시작되어 더 자주 차게 되었습니다. 경기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평생 못할 수도 있었던 경험을 해서 뜻 깊었습니다.

2학기에는 교환학생들도 적게 오고 Spring Break가 끝난 후 COVID-19 때문에 모든 수업들이 온라인 강의로 바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일찍 귀국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보람 찬 교환학생을 마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가장 먼저 교환학생 동안 살짝 몸살감기는 있었지만 크게 아픈 적이 없었고 초반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려고 많이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간 것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이라는 기회가 생기면 개개인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그 중 목표를 하나 정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

	
<p>미국인 친구 가족과 Hershey Park</p>	<p>교환학생 친구들과 OT 행사</p>
	
<p>교환학생 친구들과 Pittsburgh</p>	<p>Halloween Party</p>
	

Ohio 친구들과 Washington

교환학생 친구들과 Algonquin Park



NBA 농구 경기 관람



친구들과 Soccer



Skydiving in Miami



Time Square Ball Drop in New York

